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The Effect of Maternal Attachment and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1차원고접수: 2023.04.01. 수정원고접수: 2023.06.01. 최종게재결정: 2023.06.19.

민미희¹

¹서경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Min, Mi Hee¹

¹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국문초록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중단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상당수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 아동패널(PSKC)」 12차년도 초등학교 5학년 1,281명(남아 662명, 여아 61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애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였고,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애착과 학습참여에 대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Abstract Many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difficulty adjusting to school, with the rate of suspen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reasing every year.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and children's school adaptation. For this purpose, 1,281 fifth graders(662 boys and 619 girls) in the 12th year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ere stud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s follows. First, maternal attach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aptation,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chool adaptation. Second, the impact of maternal attachment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This study suggests that maternal attachment, parental involvement in learning, and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help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tter adapt to their school life.

Keywords *maternal attachment,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adaptation*

* 본 연구는 2022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to 민미희 (Min, Mi Hee)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E-mail. mkinder@skuniv.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가정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회적 맥락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학교는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과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정 밖 환경이다 (Lynch & Cicchetti, 1997). 학교는 초등학교 아동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규범과 역할을 배우는 기관으로, 학교생활을 통해 아동은 정체감을 형성하며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간다. 이에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까지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에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여러 학교부적응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22)에 의하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42,755명)로 전 학년도(0.6%, 32,027명) 대비 0.2%p(10,728명)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0.6%(15,389명), 중학생은 0.5%(7,235명), 고등학생은 1.5%(20,131명)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고등학생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높다는 것은 초등학생의 상당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부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적응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적응이란 개인이 학교라는 교육적 환경에 순응하거나 환경을 개인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역동적인 과정으로(Bierman, 1994), 아동이 학교 환경에 편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성공하게 되는 정도(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자녀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특성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규명하여 왔다. 이 중 부모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특성의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김영춘, 정민숙, 2012; 조은정, 2012; 하명선, 이순복, 2009; Amato & Fowler, 2002), 부모(유병선, 이지연, 이채희, 2008) 및 어머니(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와의 애착,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원재순, 김진숙, 2014; 임정화, 전종철, 2012) 등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Bowlby, 1973)에 의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움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교사의 관계로까지 확대하여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도 부모애착(김은향, 고은영, 2022; 채선화, 김진숙, 2015; 황윤정, 민하영, 2012; 황종호, 이항숙, 유숙경, 장성화, 2017) 및 어머니애착(임수진, 안진홍, 2012)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 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이 아버지애착 점수와 어머니애착 점수를 합산한 부모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아동의 성장과 학교적응에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연, 김복미, 2012).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자녀가 학업적·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Fishel & Ramirez, 2005), 부모의 양육 활동 중에서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조력하고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김종덕, 2001).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주로 자녀의 건강과 신체 발달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양육자의 역할을 하지만, 자녀가 입

학한 후에는 자녀의 학습과 학교적응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지나친 조기교육이나 ‘헬리콥터 부모’와 같이 적정수준을 넘어가는 학습관여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형태로의 학습참여는 꼭 필요한 일이다. 선행연구들(김경근, 2000; 류방란, 송혜정, 2009; 최인재, 오수연, 2010; Fan & Chen, 2001)에서는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최근에는 학업성취를 넘어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적 참여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손선옥, 민원홍, 2022; 정수진, 김도연, 2016)이 보고되었다. 한편 초등학교 아동 대상의 연구는 아주 소수 이루어졌는데,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연구결과(권정윤, 2016)와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예지, 2020)가 제시되었다. 이처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적응과 학업 성취를 예측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경험적인 자료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참여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기민희, 김미숙, 2014; 이수현, 최해림, 2007; 채지연, 2014; 최인재, 오수연, 2010), 자아존중감(박미화, 김미정, 2015; 이영예, 안권순, 2013), 자기조절능력(김정희, 안귀여루, 2013;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 임선아, 2013) 등이 있다. 이중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Lent et al., 2003), 많은 연구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학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행동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andura,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끈기를 가지고 과제를 지속한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동기가 높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능동적으로 학교적응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학생(권재한, 김경희, 2013; 김정은, 2014; 김지영, 김은지, 김정섭, 2018; 원주연, 2022; 장두현, 2019) 및 청소년(김다솜, 2013; 김정화, 2019; 김지한, 2015; 김택호, 황은일, 2019; 박은예, 2015; 백승원, 윤채영, 2020; 이유진, 2022; 정수진, 김도연, 2016) 대상의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학교적응의 하위 변인 중 학업에 대한 적응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 규칙 준수 등 학교적응의 여러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그간의 연구들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초등학교 아동 대상의 연구(정운정, 임선아, 2013)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및 유지되므로 학교생활을 통해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심리적으로도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그 중요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부모를 통해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데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구민주, 강버들, 2020; 김춘경, 조민규, 2014; 박원모, 천성문, 2008)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김희연, 조

구판, 2020)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은 자기효능감 발달의 주요 정보원인 동시에 다양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사회적, 언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이상희, 2007). 또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문은식, 김충희, 2002; 양난미, 이은경, 2008; 홍영주, 이지연, 2012)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전술한 연구들을 종합할 때,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생애 처음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은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영향은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에 의해 발달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된 영향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부모애착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조절(임수진, 안진홍, 2012), 자기효능감(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정서적 웰빙(김은향, 고은영, 2022), 자기역량지각(황윤정, 민하영, 2012)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손선옥, 민원홍, 2022), 학업적 실패내성(김예지, 2020)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그쳤다. 즉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아동 개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의 연구로,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초등학교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비했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개인

변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개입 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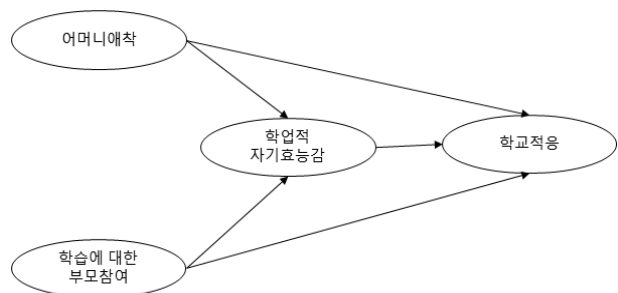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수행해 온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2차년도(2019) 초등학교 5학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여 2027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장기종단연구로, 조사영역은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보육/교육/학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 및 초등학교 5학년 데이터(2,150명) 중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에 대한 응답자료가 존재하는 최종 1,281명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

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662명(51.7%), 여아 619명(48.3%)이었다. 연구대상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515명(40.2%), 고등학교 졸업 316명(24.7%), 전문대 졸업 263명(20.5%), 대학원 졸업 155명(12.1%), 중학교 졸업 6명(0.5%) 순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487명(38.0%), 전문대 졸업 375명(29.3%), 고등학교 졸업 318명(24.8%), 대학원 졸업 84명(6.6%), 중학교 졸업 5명(0.4%) 순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89명(22.6%),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236명(18.4%),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193명(15.1%) 순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애착

어머니애착은 Armsden와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이정립 등(2017)에서 번안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초등학교 5학년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각각 답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6문항), 소외감(3문항), 신뢰감(3문항)에 대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의사소통)”, “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소외감, 역코딩)”,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신뢰감)” 등이 있다. 아동이 직접 답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고,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1]~항상 그렇다[5])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애착 척도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6이다.

표 1. 연구대상 아동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

(N = 1,281)

변인	구분	n(%)
아동 성별	남자	662(51.7)
	여자	619(48.3)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6(0.5)
	고등학교 졸업	316(24.7)
	전문대 졸업	263(20.5)
	4년제 대학교 졸업	515(40.2)
	대학원 졸업	155(12.1)
	결측치	26(2.0)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5(0.4)
	고등학교 졸업	318(24.8)
	전문대 졸업	375(29.3)
	4년제 대학교 졸업	487(38.0)
	대학원 졸업	84(6.6)
	결측치	12(0.9)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7(2.1)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120(9.4)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236(18.4)
	4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89(22.6)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193(15.1)
	6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139(10.9)
	700만원 초과	189(14.8)
	결측치	88(6.9)

2)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Manz, Fantuzzo와 Power (2004)가 사용한 ‘학습에 대한 가족참여(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국문으로 번역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5학년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한국 초등학생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 기반 참여도(10문항)와 학교 기반 참여도(7문항)에 대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자녀를 위해 집에 학습 자료를 구비해 둔다(가정 기반 참여도)”,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여한다(학교 기반 참여도)” 등이 있다. 보호자가 4점 리커트 척도(드물다[1]~항상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6이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인싸이트 심리검사연구소의 ‘AMT 학업동기검사(Academic Motivation Test)(김아영, 2003)’를 활용하였는데 AMT 학업동기검사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이다. AMT 학업동기검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al self-efficacy)과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al failure tolerance)의 두 가지 동기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 동기검사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과제수준 선호(8문항)에 대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이 직접 답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고, 모든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1]~매우 그렇다[6])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싸이트 심리검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T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T점수는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표준 점수로 변환한 수치로서 50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위의

점수는 평균보다 높고, 이보다는 낮은 점수는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의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개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된 도구(정화실, 2009)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6문항)의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학습활동)”,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학교규칙)”,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교우관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교사관계)” 등이 있다. 아동이 직접 답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고,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척도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PSS 25.0 for Windows와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으며,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값과 함께 TLI, CFI, RMSEA를 검토하였다. χ^2 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해서 쉽게 기각하는 경

항이 있으나,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양호도를 고려한 좋은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0 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또한 변수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1,000회 실시(홍세희, 2018)하였고,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애착은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하위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

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의 하위변인 중 가정기반 참여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의 하위변인 중 학교기반 참여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변인,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습활동, 학교규칙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반해,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교우관계, 교사관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의 하위변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자료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시킴을 확인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2. 측정모형 분석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잠재변인이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 효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 = 1,281)

변인	1-1	1-2	1-3	2-1	2-2	3-1	3-2	3-3	4-1	4-2	4-3	4-4
1-1 의사소통	1											
1-2 소외감	.10**	1										
1-3 신뢰감	.60***	.30***	1									
2-1 가정기반 참여도	.13***	.09**	.06*	1								
2-2 학교기반 참여도	.14***	.09**	.10***	.46***	1							
3-1 자신감	.17***	.19***	.20***	.09**	.09**	1						
3-2 자기조절 효능감	.31***	.08**	.25***	.20***	.11***	.29***	1					
3-3 과제수준 선호	.22***	.05	.15***	.15***	.10***	.26***	.57***	1				
4-1 학습활동	.34***	.20***	.32***	.23***	.13***	.33***	.54***	.43***	1			
4-2 학교규칙	.27***	.16***	.30***	.15***	.10***	.21***	.33***	.26***	.60***	1		
4-3 교우관계	.28***	.13***	.29***	.10**	.05	.33***	.37***	.23***	.57***	.61***	1	
4-4 교사관계	.29***	.10***	.22***	.09**	.04	.22***	.30***	.21***	.48***	.46***	.47***	1
M	3.94	3.45	4.19	2.55	2.07	56.75	55.58	50.02	3.13	3.21	3.26	3.18
SD	.74	.75	.70	.48	.70	9.10	10.33	9.44	.46	.45	.42	.60
왜도	-.48	-.36	-.72	.23	.51	-.62	-.57	.26	-.22	-.02	-.07	-.54
첨도	-.13	.54	-.03	-.04	-.37	-.14	1.00	-.31	.43	-.14	-.42	.13

주. 1. 어머니애착, 2.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3. 학업적 자기효능감, 4. 학교적응

** $p < .01$. *** $p < .001$.

능감, 학교적응을 측정 요인이 적절히 설명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측정 요인이 잠재 변인의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모든 잠재 변인에 대한 측정 요인의 모든 요인부하량(β)의 절댓값이 .40 ~ .87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만족시켰다(Bagozzi, Wong, & Yi, 1999). 즉, 각 측정 변인이 해당 잠재 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잠재변인 간의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을 말하는 것으로,

잠재 변인 간의 상관이 .19 ~ .73로 모두 .85 미만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Bagozzi & Yi, 1988).

3.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308.205(df = 47, p < .001)$, TLI = .918, CFI = .941, RMSEA = .066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각 변수들의 경로계수는 표 4, 그림 2와 같다. 어머니애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 = .40, p < .001$) 및 학교적응($\beta = .25, p < .001$)에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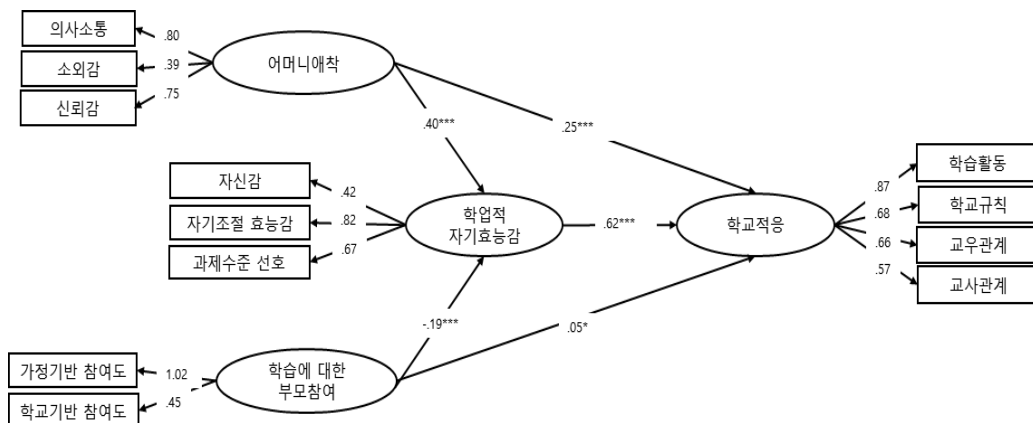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282.859	46	.000	.924	.947	.063

표 4.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1,281)

경로	B	β	S.E	t
어머니애착 → 학업적 자기효능감	4.25	.40	.43	9.82***
어머니애착 → 학교적응	.17	.25	.02	7.30***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3.86	.19	.65	5.96***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 학교적응	.07	.05	.03	2.13*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04	.62	.00	15.49***

* $p < .05$. *** $p < .001$.



* $p < .05$. *** $p < .001$.

그림 2. 최종모형의 표준화계수 추정 결과

적응($\beta = .25,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 = .19, p < .001$) 및 학교적응($\beta = .05, p < .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beta = .62,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 횟수 $n = 1,000$ 으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변수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모두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beta = .25, 95\% \text{ C.I. } [.19 \sim .31]$)를 보였다. 즉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beta =$

.12, 95% C.I. [.06 ~ .18])를 보였다. 즉 부모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중단율이 매년 높아지는 등 학교부적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대한 연구적 관심에서 출발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PSKC)」의 12차년도 초등학교 5학년 데이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애착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희연, 조규판,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애착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구민주, 강버들, 2020; 김춘

표 5. 매개효과 검증

					β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어머니애착	→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25*	.19	.31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12*	.06	.18

* $p < .05$.

경, 조민규, 2014; 박원모, 천성문, 2008)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양식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은 애착 대상이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준다고 느끼면 그 애착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가지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지만, 이러한 대상자에게 거절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 아동은 그 애착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내적 표상을 가지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수용되지 못한 가치 없는 존재로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것(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부모애착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은향, 고은영, 2022; 임수진, 안진홍, 2012; 채선화, 김진숙, 2015; 황윤정, 민하영, 2012; 황종호, 이향숙, 유숙경, 장성화, 201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은 가정 내 관계를 넘어서 친구와 교사의 관계로까지 확대하여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타인이 자신의 요구에 반응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긍정적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조절하며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한다.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친구나 교사와 같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이것이 아동 자신에게 학교생활의 만족감으로 이어져 높은 학교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문은식, 김충희, 2002; 양난

미, 이은경, 2008; 홍영주, 이지연, 2012)과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초등학생(권정윤, 2016) 및 중고등학생(손선옥, 민원홍, 2022; 정수진, 김도연, 2016)의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초중고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와 맥을 같이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헬리콥터 부모 등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언급되어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의 방해요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또는 부모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과열된 교육열, 높은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학습에 대한 관심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는 부모가 자녀의 지나친 성취만을 기대하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집에 학습 자료를 구비하고,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자녀의 긍정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부모역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권재한, 김경희, 2013; 김정은, 2014; 김지영, 김은지, 김정섭, 2018; 원주연, 2022; 장두현, 2019) 및 청소년(김다솜, 2013; 김정화, 2019; 김지한, 2015; 김택호, 황은일, 2019; 박은예, 2015; 백승원, 윤채영, 2020; 이유진, 2022; 정수진, 김도연, 2016), 그리

고 초등학생(정운정, 임선아, 2013)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동기가 높고, 어려움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교적응을 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학업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Ouweneel, Schaufeli, & Le Blanc, 2013)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효능감이 학업 중단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령, 2019)를 토대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임수진, 안진홍, 2012), 자기효능감(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정서적 웰빙(김은향, 고은영, 2022), 자기역량지각(황윤정, 민하영, 2012)이 부모애착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손선옥, 민원홍, 2022), 학업적 실패내성(김예지, 2020)이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어머니애착과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라는 아동의 학교적응의 예측요인과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매개한다는 직, 간접적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학교생활은 대인관계 외 학업성취, 규칙 준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활동임을 고려해 볼 때, 학교적응은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관계인 애착이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에 의해 발달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이 아동의 건강한 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효능감이 가정 밖 학교환경 적응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의 2019년에 조사를 실시한 초등학교 5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의 변화 추이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 분석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또래의 영향력도 커지는 시기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또래 애착 등 또래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분석하였는데,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영향력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애착,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어머니애착 및 학습에 대한 부모참여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교부적응 문제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2.8.30).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구민주, 강버들 (2020).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수상해양교육연구*, 32(1), 222-231.
<https://doi.org/10.13000/JFMSE.2020.2.32.1.222>
- 권재한, 김정희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35, 31-57.
- 권정운 (2016).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습관여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민희, 김미숙 (2014).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585-612.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다솜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령 (2019).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외로움, 언어능력, 자기효능감과 학업중단의도의 구조적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4), 139-154.
<https://doi.org/10.15284/kjhd.2016.23.4.139>
- 김아영(2003). AMT 학업동기 검사 전문가 지침서. 심리검사 연구소 인사이트.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예지 (202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 및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실패내성을 매개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향, 고은영 (2022).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과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아동 불안과 정서적 웰빙을 매개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1), 416-427.
<https://doi.org/10.5392/JKCA.2022.22.11.416>
- 김정은 (2014).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9(1), 79-102. <https://doi.org/10.26592/ksie.2014.9.1.79>
- 김정화 (2019). 남자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동기와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613-634.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0.613>
- 김정희, 안귀여루 (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23-836.
<https://doi.org/10.17315/kjhp.2013.18.4.013>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김은지, 김정섭 (2018). 전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고개발*, 14(1), 53-73.
<https://doi.org/10.51636/JOTD.2018.03.14.1.53>
- 김지한 (2015).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초, 중, 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 조민규 (2014).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결정성동기, 학업스트레스,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337-359.
- 김택호, 황은일 (2019).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2), 213-233.
<https://doi.org/10.21509/KJYS.2019.02.26.2.213>
- 김희연, 조규판 (2020).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501-52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1.501>
-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7(2), 281-292.
- 류방란, 송혜정 (2009). 초 · 중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에 미치는 가정과 학교경험의 영향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3), 1-25.
<https://doi.org/10.15753/aje.2009.10.3.001>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박미화, 김미정 (2015). 또래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4(1), 1-19.
- 박원모, 천성문 (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41-59.
<https://doi.org/10.16983/kjsp.2008.5.1.41>
- 박은예 (2015).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승원, 윤채영 (2020).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교육혁신연구*, 30(3), 175-199. <https://doi.org/10.21024/pnuedi.30.3.202009.175>

- 손선옥, 민원홍 (2022). 다문화 가정 부모의 가정 기반과 학교 기반 교육 관여 행동이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경로: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11), 617-642.
<https://doi.org/10.21509/KJYS.2022.11.29.11.617>
- 양난미, 이은경 (2008). 초등학교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 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자아탄력 성과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아동교육*, 20(3), 165-180.
- 원재순, 김진숙 (2014).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2(3), 123-135.
- 원주연 (2022).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 89-104.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89>
- 유병선, 이지연, 이채희 (2008). 초등학교의 부모애착이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6(3), 3-14.
- 이상희 (2007). 지역아동센터 경험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현, 최해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 이영예, 안권순 (2013). 자아존중감과 성격 특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257-281.
- 이유진 (2022).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 생활적응의 관계: 전공 관련 내재가치의 조절효과. *충북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인, 김준경, 한은수 (2014). 초등학교의 부모애착, 또래 애착,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간의 관계 구조분석. *초등 교육연구*, 27(4), 345-367.
- 이정림, 이정림, 김지현, 이규림, 조혜주, 임종한, Gustavo Carlo (2017). 한국 어린이 성장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연, 김복미 (2012).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적 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45-263.
<https://doi.org/10.18205/kpa.2012.17.2.009>
- 임선아 (2013).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기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구조관계 검증. *아동과 권리*, 17(2), 229-247.
- 임수진, 안진홍 (2012).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31-345. <https://doi.org/10.16983/kjsp.2012.9.2.331>
- 임정화, 전종설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학연구*, 19(8), 169-190.
- 장두현 (2019). 미용전공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생을 중심 으로. *미용예술경영연구*, 13(1), 89-109.
<https://doi.org/10.22649/JBAM.2019.13.1.89>
- 정수진, 김도연 (2016).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5(2), 167-181.
<https://doi.org/10.22839/adp.2016.5.2.167>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정운정, 임선아 (2013).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 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7(4), 853-873.
- 정화실 (2009). 초등학교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 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 료학회지*, 15(1), 35-50.
- 채선화, 김진숙 (2015). 학교급별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 애착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339-358.
<https://doi.org/10.15703/kjc.16.4.201508.339>
- 채지연 (201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오수연 (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부모지원,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3), 95-113.
- 하명선, 이순복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18).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양한 확장. 서울: 박영사
- 홍영주, 이지연 (201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교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학교 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325-342.
- 황윤정, 민하영 (2012).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역량지각을 매개변인으 로. *가정관리학회지*, 30(2), 65-73.
<https://doi.org/10.7466/JKHMA.2012.30.2.065>
- 황종호, 이향숙, 유숙경, 장성화 (2017). 초등학교의 부모애 착,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6(2), 407-424.
<https://doi.org/10.17643/KJCE.2017.26.2.20>
- Amato, P.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703-71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703.x>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Bagozzi, R.,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s*, 16(1), 74-94. <http://doi.org/10.1007/BF02723327>
- Bagozzi, R. P., Wong, N., & Yi, Y. (1999). The role of culture and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Cognition and Emotion*, 13(6), 641-672 <http://doi.org/10.1080/026999399379023>.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https://doi.org/10.1037/0022-3514.61.2.22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https://doi.org/10.1037/0033-2909.107.2.238>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danger* (Vol. 2). New York, NY: Basic Book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https://doi.org/10.1023/A:1009048817385>
- Fishel, M., & Ramirez, L. (2005). Evidence-based parent involvement interventions with school-ag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0(4), 371-402. <https://doi.org/10.1521/scpq.2005.20.4.371>
- Hong, S., Malik, M. I.,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log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https://doi.org/10.2307/1131882>
- Lent, R. W., Brown, S. D., Schmidt, J., Brenner, B., Lyons, H., & Treistman, D. (2003). Relation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hoice behavior in engineering majors: Test of alternative social cognitive mode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4), 458-465. <https://doi.org/10.1037/0022-0167.50.4.458>
- Lynch, M., & Cicchetti, D. (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81-99. [https://doi.org/10.1016/S0022-4405\(96\)00031-3](https://doi.org/10.1016/S0022-4405(96)00031-3)
- Manz, P. H., Fantuzzo, J. W., & Power, T. J.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mily involvement among urban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6), 461-475. <https://doi.org/10.1016/j.jsp.2004.08.002>
- Ouweneel, E., Schaufeli, W. B., & Le Blanc, P. M. (2013). Believe, and you will achieve: Changes over time in self-efficacy, engagement, and performance.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5(2), 225-247. <https://doi.org/10.1111/aphw.12008>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https://doi.org/10.1007/BF02291170>